

미국,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시장 성장세



미국, 코로나19의 악화로 식품시장에 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캘리포니아주 스테이앳홈(Stay at Home) 행정명령을 비롯 미국 내 각 주정부의 자택대기명령이 이어지며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식료품 구매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들은 사재기 현상으로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휴지, 물 등의 일부 생필품은 일인당 구매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6피트(약 183cm)거리두기 및 매장 내 출입 인원 제한 때문에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서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식료품 구입을 위해 마켓 방문도 부담이 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식료품 구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식료품 시장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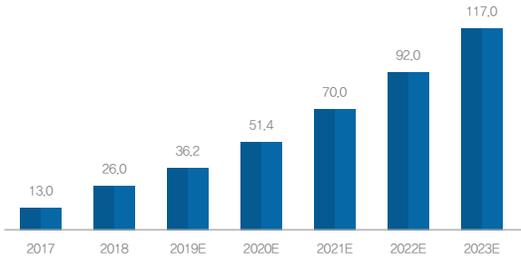
미국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6년 120억 달러 규모에서 2018년 26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코로나19는 온라인 구입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점차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510억 달러로 급증하고 2023년에는 1,1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브릭미츠클릭(Brick Meets Click)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내 약 4,000만 가구(31%)가 온라인 식료품 배달이나 픽업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8월 1,600만 가구(13%)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어니스트 리서치(Earnest Research)에 따르면 인스타카트, 아마존, 월마트 그로서리 등 온라인 배송 및 픽업 서비스(buy online pick up at store (BOPIS))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최소 2/3 이상 증가했다. 북미 전역 약 2만5,000개 지점과 제휴해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스타카트는 최근 150%의 매출 증가를 보였다.



[온라인 식품 시장 전망]



출처 : 비즈니스 내부자 정보 추정치
출처 : www.businessinsider.com

라쿠텐 인텔리전스(Rakuten Intelligence)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인한 불안감 및 사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아마존, 월마트, 크로거 등의 온라인 주문은 151%, 매출은 210% 증가했다.

소비패턴 변화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량 급증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 변화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아코스타(Acosta)에 따르면 지난 3월 온라인 식품 소비자 28%는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으로 온라인 식품을 주문했다고 응답했다. 기존 온라인 구입 소비자도 앞으로 보다 자주 구입할 계획이며 실제 지난 3월 구입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 픽업 서비스를 이용한 36%의 소비자는 3월에 주문량을 33% 늘렸다고 답했으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38%의 소비자는 3월 주문량을 37% 늘렸다고 답했다.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온라인 주문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도 급증했는데 특히 당일배송 서비스 업체인 인스타카트(Instacart), 쉽트(Shipt) 등의 2월~3월 중순 기간동안 일 평균 앱 다운로드는 각각 218%, 124% 증가했다. 인스타카트는 식

[미국의 온라인 식품 배달 및 픽업]

지난 30일 활동(2019년 8월 vs. 2020년 3월)

성능 측정 기준*	8월 2019	3월 2020	백분율 변화
판매 (지난 30일)	\$1.2 B	\$4.0 B	+ 233%
소비 (주문당 평균)	\$72	\$82	+ 14%
주문 (# 지난 30일)	16.1 M	46.9 M	+ 192%
고객 (# 지난 30일 동안 활동)	16.1 M	39.5 M	+ 146%
빈도수 (일평균/고객)	1.0	1.2	+ 19%

* 공통 또는 계약 업체를 통해 가정으로 배송된 온라인 주문은 메트릭스 제외
Brick Meets click/shopperki 온라인 식품 쇼핑 서버리, 2020년 3월 23일-25일,
BMC 온라인 식품 쇼핑 서버리, 2019년 8월 21일-23일



출처 : www.brickmeetsclick.com

료품 주문이 평소보다 10배 증가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경우 2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마트는 3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온라인 식품 주문 웹사이트 방문객이 110만 명에 달해 2개월 전 하루 평균에서 55% 증가했으며 특히 월마트 그로서리 앱은 일평균 다운로드가 2020년 1월과 비교해 4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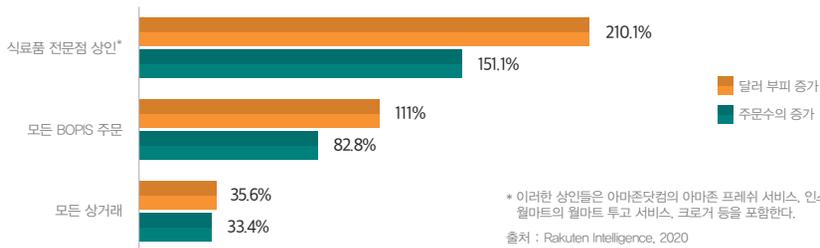
수요 급증으로 서비스 공급 어려움

수요가 폭등하며 여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주문 폭주로 네트워킹 과부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주문추소 및 배달지연 등이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아마존프레시(Amazon Fresh)는 지난달 '수요 증가로 재고와 배송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으며 2시간 내 배송 서비스였던 '인스타카트(Instacart)도 현재는 배송 가능 날짜가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씩 걸리고 있으며 월마트 그로서리 등 픽업 서비스 역시 픽업 가능시간 예약이 금방 완료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태. 수요증가에 따라 아마존 10만 명, 인스타카트 3개월간 30만 명가량 직원 추가 고용계획 밝히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식품 주문 및 BOPIS 급증]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상업판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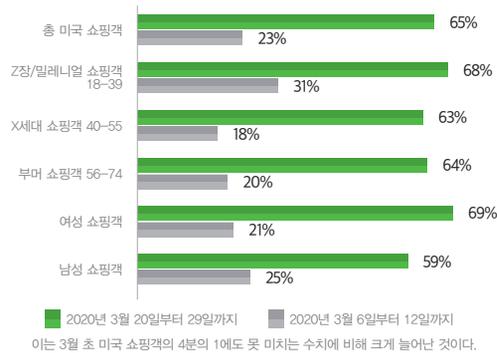


* 이러한 상인들은 아마존닷컴의 아마존 프레스 서비스, 인스타카트, 월마트의 월마트 투고 서비스, 크로거 등을 포함한다.

출처 : Rakuten Intelligence, 2020

출처 : www.digitalcommerce360.com

**미국 쇼핑객의 3분의 2가 COVID19 발병에 대응하여
식품 쇼핑 습관을 바꿨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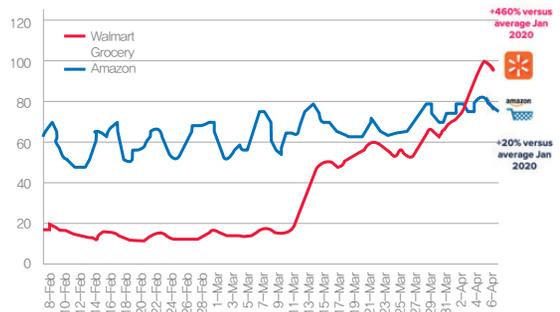


이는 3월 초 미국 쇼핑객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출처 : www.supermarketnews.com

[인덱싱된 일별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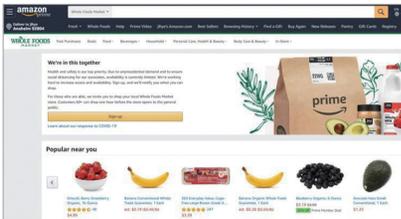
COVID-19 미국 대유행 기간 중



참고: iOS 및 Google 플레이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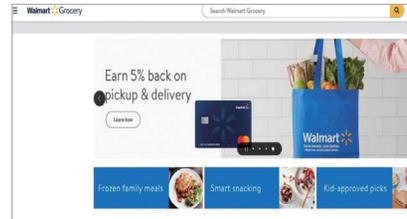
출처 : www.techcrunch.com

미국 온라인 식품 배달 및 픽업 서비스 제공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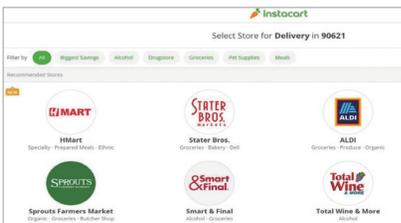
www.amazon.com

- '아마존프레쉬'(Amazon Fresh)
- '19년부터 아마존 프라임 고객은 프레쉬 별도 요금(\$14.99) 제외
- 훌푸즈마켓 식품 구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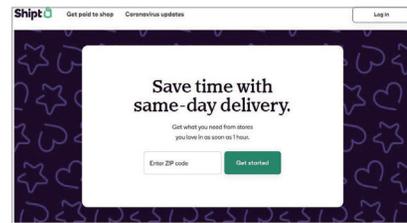
grocery.walmart.com

- 미국 내 온라인 매출 선두 - 미국 내 4,700여개 매장 보유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옴니채널 (Omni-Channel)이 강점
- 픽업 서비스로 아마존과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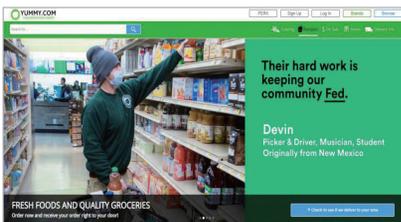
www.instacart.com

- '12년 실리콘밸리지역 신선식품 구매대행 배달 스타트업으로 시작
- '풀서비스샤퍼'(full-service shopper)가 직접 쇼핑해서 집까지 배달
- 북미 5,500여개 도시 25,000매장과 제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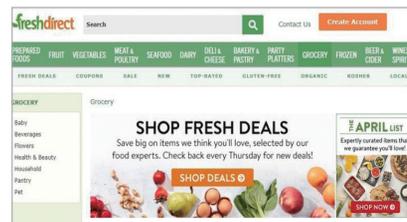
www.shipt.com

- '14년 식품품 당일배송 스타트업으로 시작
- '17년 소매체인 '타겟'(Target)에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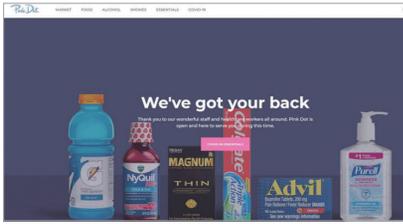
yummy.com

- LA 인근 지역 5개 매장 보유 - '동네마켓(Neighborhood market)컨셉
- 최소주문 14,99달러 배달비 6.99달러로 30분내 배송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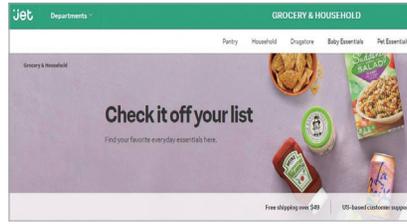
www.freshdirect.com

- 미국 동부지역 식품품 배송업체
- '19년부터 맨하탄지역 당일배송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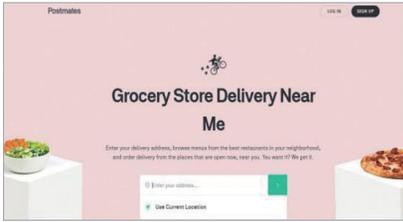
pinkdot.com

- LA 소재 업체
- 인근지역 식료품 및 생필품 배송
- 9:00 am ~ 2:00am 배송 가능



www.jet.com

- '15년 설립, '17년 월마트에 인수
- 월마트가 자체 온라인을 강화하며 부진



postmates.com

- 음식배달서비스업체
- 최근 로컬 마켓 그로서리 배송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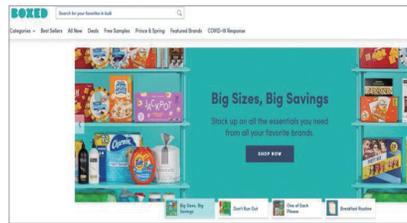
thrivemarket.com

- 유기농, 비건 전문 멤버십 온라인 마켓
- 연간 \$59달러, 월 \$9.95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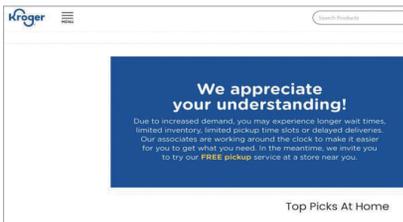
www.peapod.com

- 신선제품 마켓에서 직배송
- 가정 및 비즈니스 배송 가능
- 미 북동부지역 서비스



www.boxed.com

- 벌크(bulk) 구입 전문 온라인 마켓
- 우유, 계란, 과일, 야채도 벌크 구입 가능



www.kroger.com

- 1902년 창립한 미국 최대식료품업체
- '17년부터 온라인 판매 강화
- 아마존, 월마트와 경쟁위해 자율주행차 스타트업과 제휴, 일부 지역에 자율주행차 배달서비스를 시작

Key Point

코로나19 사태는 식료품의 온라인 구입에 의구심을 갖던 소비자들까지 흡수하면서 온라인 시장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부정적 인식 개선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아마존, 인스타카트 등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예고한 만큼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안정적인 온라인 쇼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새로움을 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쇼핑 습관이 영구적으로 바뀌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및 새로운 소비 방식에 맞는 제품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출처 : ❶ <https://www.businessinsider.com/online-grocery-report> ❷ <https://www.brickmeetsclick.com/online-grocery-delivery--pickup-scorecard--march-2020--how-do-you-compare-> ❸ <https://www.digitalcommerce360.com/2020/03/19/coronavirus-is-changing-shoppers-relationship-with-grocery-retailers/> ❹ <https://secondmeasure.com/datapoints/delivery-instacart-walmart-grocery-amazon-shipt/> ❺ <https://www.usatoday.com/story/money/2020/04/07/online-grocery-shopping-covid-19-demand/2963294001/> ❻ <https://www.zdnet.com/article/one-sector-booms-online-grocery-shopping-numbers-are-officially-crazy/> ❼ <https://techcrunch.com/2020/04/13/amazon-puts-new-online-grocery-shoppers-on-a-waitlist/> ❽ <https://techcrunch.com/2020/04/09/walmart-grocery-app-sees-record-downloads-amid-covid-19-surpasses-amazon-by-20/> ❾ <https://www.supermarketnews.com/consumer-trends/more-grocery-shoppers-making-their-first-ever-online-orders-during-pandemic> ❿ <https://www.specialtyfood.com/news/article/giant-eagle-shuts-down-store-shopping-focus-pickup-delivery-orders/> ⓫ <https://www.goodhousekeeping.com/food-products/g28039081/best-grocery-delivery-services/>